

북한땅에
문헌 조상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탈북여성 보금자리 성남 하나원서 3·1절 맞아 천도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이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3·1절을 맞은 여성탈북자들의 보금자리 성남 하나원 본원(본원장 박경실) 대강당에서 봉행된 천도제. 평화와 쾌활이 겹쳐있는 불교식 영가의식을 남한에서 처음 접해 머쓱하게 바라만 보던 77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땅에 묻혀있는 조상을 생각하며 단상 위로 올라와 서툰 몸짓으로 절을 올린다. 어떤 탈북 여성은 북에 두고 온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스님들은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원생들의 조상들이 극락왕생하기를 축원한다.

천도제가 끝나고 펼쳐진 노래자랑 한마당. '연예인 자비실천연합회(회장 박병호)' 가수들의 신명나는 공연에 원생들의 어깨가 절로 들쭉인다. 아예 자리에서 일어난 원생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빼어난 노래 솜씨를 뽐내기도 한 자리. 조상을 위로하고 난 이후 이제 그들의 앞날을 위해 근심을 털어버리도록 마련한 자리는 즐거움 노래와 춤사위로 원만하게 회향된 것이다.

"가족을 두고왔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3월 1일 열린 천도제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와 인천 서광사 주지 경봉 스님(인천불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태고승가자비회 스님 10여명, 신도 70여명이 함께 참여해 화합의 한 마당을 이루었다.



3월1일 성남 하나원에서는 북(北)에 묻어두고 온 가족을 위한 천도제와 원생들을 위한 노래자랑 대회 등 흥겹고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은 합창을 하고 있는 원생들.

이 날 행사의 선봉장인 경봉 스님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은 선교활동을 하는데 스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현대불교 기사(2004년 10월 6일자 494호 참조)를 접하고 하나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내가 하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이 제대로 스님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한달에 한 번, 법회를 집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성남 하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즐기차게 법회를 진행해온 통일 3팀 허정희 팀장은 "배고프고 한 많은 시절을 보낸 원생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이번 천도제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경봉 스님에게 감사했다.

이 날 천도제를 처음 접한 원생 이미애(34·가명)씨는 "17일이면 하나원을 떠나는데 그 전에 불교를 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너무나 의지가 된다"며 '참 좋은 인연'이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성남=김경진 기자

이색 강좌로 불자 잡아라

만해문화대학·포교사대학원·불교상담대학

예술·포교실무·상담 전문가 과정 개설 '눈길'

만해문화대학, 포교사대학원, 불교상담대학에서 일반 불교대학들과 다른 커리큘럼을 갖춘 특별한 강좌가 3월 잇달아 개강한다.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하는 만해문화대학은 개교 단청 전통문화 불교문양 등 불교예술품을 가르치는 문화전문대학이다.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의 강의로 관음42 개교 작업에서부터 단청 모리표, 4원왕 불화, 한

지 만다라 조명등, 다포, 금니 수월 관음도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포교사들을 위한 전문대학원 포교사대학원은 3월 중 개강한다. '포교사'라는 자격을 갖춘 특수계층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눈길을 끄는 '포교 전문'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수행문화학과(화과장 미산), 불교사회복지학과(화

과장 유승무)에서 불교문화해설, 불교수행론과 수행법 지도, 사회복지학 등 이론과 포교실무, 불교의식, 스피치 집단상담, 포교현장 활동 등 포교실무 분야 12개 강좌가 개설된다.

23일에 개강하는 불교상담대학은 '상담'만을 다룬다. 1학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분야별 상담 전문가가 나서 각종 상담에 대한 강좌를 연다. 2학기에 들어서면 상담 전문가 과정으로 변모해 전화·사이버·청소년사이버·현장실습·상담 사례연구 등의 분야별 이론과 사례 분석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강좌로 구성된다.

김지연 기자

북관대첩비 돌아온다

100년전 일제 약탈...南 거쳐 北으로

100년 전 일제에 약탈된 '북관대첩비'가 올 상반기 내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반환운동을 펼쳐온 북관대첩비한국법민족운동본부 회장 조산 스님과 일한불교복지협회장 가키누마 센스님은 3월 1일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난부 도시아키 공사와 첫 협상을 갖고 북관대첩비의 조기 반환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금강산 남북한 대표 회동을 통해 북관대첩비를 남측에서 인수한 뒤 북측으로 넘기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북관대첩비의 북한 인도를 위한 회담은 4월경 북경에서 열린다.

김유신 기자

디지털콘텐츠 무료 이용 4월까지 시범서비스

3D사찰 모델 등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3월 2일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에서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절집' 등 일부 문화원형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제공 콘텐츠는 사찰의 각종 전각들을 디지털화한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절집'을 비롯해 '길상 이미지' '우리문화의 상징이아닌, 부적' 등 5개 주제 콘텐츠군이다.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무료 콘텐츠는 2주마다 교체될 예정이다.

문화원형콘텐츠는 우리 전통문화를 디지털로 재현해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업의 결과물인 61개의 테마가 문화원형콘텐츠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는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에 창작소스로 활용 가능하다.

김신재 기자

파라미터청소년협회 中 청소년초청사업 주관

(사)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문화관광부의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주관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중국 청소년 지도자 100명을 초청해 행사를 치른바 있는 파라미터는 올해도 내원청소년단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의 2005년 중국청소년초청사업에 참여한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40세 이하 공무원 100명으로 이루어지게 될 초청단은 10월 17~2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산업시설 견학 △역사 문화 탐방 △한국가정 민박 △청소년수련시설 견학 및 체험 △한국문화체험 및 관광 △국제 행사장 견학 △국내 청원지도자와 교류회 개최 △관련기관 및 단체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한편 파라미터는 2월 25일 열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단체로 선임됐다.

김지연 기자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조계사 13일부터 기획법회

지난해 전국선원장 초청대법회를 개최했던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한국불교의 지향점과 역할을 모색하는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기획법회를 3월 13일부터 8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불교신문사(사장 황적)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서는 '수행과 실천'을 주제로 중진 스님 8명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먼저 도법 스님(3월 13일·생명평화의 불교)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3월 20일·불교의 깨달음이 법회의 큰 줄기를 잡고,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3월 27일·전통적 '계율의 의미'), 해인사 율원장 해능 스님(4월 3일·현대사회에서의 계율),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4월 10일·우리들의 가까운 옛, 수트라)이 수행의 현대화, 대중화를 모색한다. 이어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4월 17일·글로벌시대의 한국불교),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4월 24일·지역과 함께하는 불교), 민주본 본부장 명진 스님(5월 1일·통일시대의 불교)이 불교의 올바른 사회적 실천방향을 논한다.

한편 조계사는 불교인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를 상반기 중에 발족, 소장화자들을 육성해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축원기도금의 15%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이밖에 3월 12일 일주문 기공식을 시작으로 중창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용수 기자

뉴욕총영사 성경강좌 중단

"이웃 종교인에 사과"

성경강좌 개설로 파문을 일으켰던 문봉주 뉴욕총영사가 강좌를 중단했다.

문 총영사는 2월 27일 열린 마지막 강좌에서 "공직자로서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월 23일부터 시작한 '성경의 맥을 잡아라' 강좌 중단을 선언했다.

문 총영사는 또 "이웃 종교인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각각 성명을 내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좌를 중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외교

관들의 종교 편향활동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 창립

불교성지의 복원과 불교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회장 선일)가 2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세계불교성지보존협회는 네팔 룸비니, 인도 부다가야, 녹야원 등의 불교성지 뿐만 아니라 역대조사들의 불교유적을 보호 복원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협회는 앞으로 이 지역에 한국사람 건립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인안, 공연, 전시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

지혜의 샘 행복의 길

www.bongeunsa.org

2005년도 봉은사 신도교육 안내 및 수강생 모집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입문교육
불교와 봉은사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봉은사에 대한 소개와 불자예절, 기도방법 등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교육합니다.

- 일 시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등록금 : 무료
- 대 상 :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봉은불교 기초학당(주간/야간)
불교의 기초교리 및 수행법을 이해하며 참된 불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의무 기본교육과정입니다.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기 간 : 3개월 과정 (12회 로테이션)
- 등록금 : 3만원 (교재비 별도)
- 대 상 : 초심자 및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봉은불교대학

- 교육과정 : 1년 2학기제
- 교육내용 : 불교역사, 불교교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 포교상담기술론, 경전과불교 신앙사, 선종의 역사와 봉은사 등
- *상기과정은 사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구분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10시~12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9시30분
- 지원자격 : 기본교육이수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
- 특 전 : 조계종 포교사교시 응시자격 부여
- 교 육 비 : 30만원(학기당 15만원)
* 교재비 별도

■ 봉은 경전학교

- 경전명 : 금강경
- 기 간 : 2005년 3월 25일 - 7월 1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개 강 :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 등록금 :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 봉은불교대학 졸업자, 신도전문교육 이수자

■ 봉은 연화대학

- 기 간 : 2005년 3월 11일 ~ 7월 13일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4시
- 개 강 : 2005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 등록금 : 4만원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 문의 / 접수 : 포교팀 516-5652, 3218-4814
홈페이지 : www.bonge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2호선 삼성역 6번출구)